

# 베트남전쟁 메모리얼에 나타난 기념문화<sup>†</sup>

이상석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 A Study on Commemoration Culture of Vietnam War Memorials in Vietnam

Lee, Sang-Suk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University of Seoul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ommemoration culture of Vietnam War Memorials (VWM) in Vietnam. Through site survey, the researcher selected 23 VWM in Vietnam and analyzed 5 categories: memorial type, design concept and narratives, location and spatial form, landscape elements, and content expressed in landscape detail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Because of the long, drawn out Vietnam War, which lasted from 1955 to 1975, VWM were divided into 10 types mainly as soldier cemeteries based on a traditional memorial style, battlefields and places of tragedies considering sense of place, war museums representing victory and atrocity in war, and peace parks promoting reconciliation and peacemaking.
2.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main concepts and narratives of VWM were to value the victims of the Vietnam War, remember soldiers' contributions, highlight the victory in war and resistance to the United States, and express a sense of place. Peacemaking applied only to My Lai Peace Park and Han-Viet Hoa Binh Cong Vien, built by international cooperation.
3. Cemeteries and appreciation memorials were designed to follow a traditional memorial space form that highly regard both axis and symmetry. The design concept at battlefields and places where tragedies occurred depended mainly upon a sense of place and used symbolic landscape elements to compensate for the undefined concept.
4. Sculptures and towers were mainly used to highlight war victory and resistance as the representative style of a Socialist country, weapons and pictures exhibited in war museums and battlefield showed the reality and strain of war. Symbolic elements of Buddhism and Confucianism were often introduced as a way to venerate the memory of deceased persons.
5. The state and heroic actions in the Vietnam War were realistically depicted on sculptures and walls. Also, the symbolic phrase, 'TO-QUOC-GUI-CONG' meaning 'our country remember your achievement', were written on the memorial tower and 'Quagmire' was used to metaphorically represent the difficulties faced by the U.S. military on battlefields during the war and the uncertainty that pervaded U.S. society in those days.
6. In VWM, ideologies like nationalism, patriotism, socialism, capitalism were mixed and traditional cultures like Buddhism, Confucianism, Taoism were inherent. Differing from their Confucianism culture, war heroes, particularly

<sup>†</sup>: 이 논문은 2010년도 서울시립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Sang-Suk Lee,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University of Seoul, Seoul 130-743, Korea, Tel.: +82-2-2210-5775, E-mail: sanglee@uos.ac.kr

including women, were often described by sculpture, monument, and pictures and the conflict in and outside the country regarding the Vietnam War was shown.

Further study will be required to analyze design characteristics of VWM in the U.S. and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in commemoration cultures between Vietnam and the U.S.

*Key Words: Traditional Culture, Symbol, War Museums, Landscape Details, Monuments*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베트남에 있는 베트남전쟁 메모리얼을 대상으로 메모리얼의 유형적 특성, 설계개념 및 내러티브, 입지 및 공간적 특성, 도입요소의 특성, 조경디테일에 나타난 표현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베트남전쟁 메모리얼에 나타난 기념문화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오랜 전쟁으로 인해 베트남전쟁 메모리얼은 군인묘지, 전적지, 전쟁박물관, 비극적 장소, 평화공원 등 10가지 유형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전통적 양식에 근거한 군인묘지, 장소성을 강조한 전적지와 비극적 장소, 전쟁승리와 잔혹함을 표현한 전쟁박물관, 평화공원이 특징적인 유형으로 나타났다.
2. 메모리얼에 나타난 주요한 설계개념 및 내러티브는 희생자 추모, 국가에 헌신, 전쟁승리와 저항, 장소적 기념성으로 나타났으며, 국제적인 민간단체의 협력에 의해 만들어진 미라이 평화공원(My Lai Peace Park) 및 한-베 평화공원(Han-Viet Hoa Binh Cong Vien)<sup>1)</sup>에서 비극적 사건을 극복하고 평화를 도모하는 개념을 적용하였다.
3. 메모리얼은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DMZ) 및 전쟁 루트였던 호치민 트레일(Ho Chi Minh Trail), 그리고 베트남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주요한 도로인 A1 국도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밖에 하노이 및 호치민 등 도시에 전쟁박물관 및 모뉴먼트가 조성되었다. 묘지 및 추모 메모리얼에서는 문과 기념탑(또는 제단)을 연결하는 축을 중심으로 좌우에 묘역이 배치되는 전통적 공간체계를 따랐으며, 전적지 및 비극적 장소에서는 장소성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설계를 통한 특징적인 공간 형태보다는 상징적 요소를 도입하여 기념성을 구현하였다.
4. 기념조각 및 기념탑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대표적 양식으로 전쟁승리 및 저항정신을 표현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고, 포획한 무기를 전시하고 박물관에 사진 및 모형 등 자료를 전시하여 전쟁의 긴장감과 리얼리티를 보여주고 있으며, 유교 및 불교 등 전통문화에 근거한 상징요소를 도입하여 추모감을 높였다.
5. 기념조각이나 기념벽에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이용한 사실적 표현을 강조하였다. 또한 상징적 문구로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TO-QUOC-GHI-CONG(土-國-記-功)'에서 전사자의 업적과 국가적 관심을 나타냈으며, 이와 반대로 'Quagnire'는 미군 참전용사들이 베트남에서 겪은 혼란스럽고 어려운 전투 상황과 베트남전쟁에 대한 미국사회의 혼돈을 묘사하는 정치사회적인 메타포(metaphor)로서 사용되었다.
6. 베트남전쟁 메모리얼에는 민족주의, 애국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등 다양한 이데올로기가 복합되어 있고, 유교·불교·도교·음양오행사상이 잘 나타났다. 한편, 유교적 전통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전쟁에서 영웅적 여성의 모습을 강조하였으며, 일부 메모리얼에서 베트남전쟁에 대한 국내·외적 갈등이 내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향후 미국에 있는 베트남전쟁 메모리얼의 설계특성을 연구하여 전쟁에 대한 인식 및 기념문화적 특성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전통문화, 상징, 전쟁박물관, 조경디테일, 모뉴먼트

## 1. 서론

1955년부터 1975년까지 계속된 베트남 전쟁은 민족적 공산주의자들인 베트남 민주공화국(북베트남)과 베트남 민족해방전선(National Liberation Front: NLF)이 베트남공화국(남베

트남)과 싸운 내전이었지만,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이 남베트남을 지원하기 위해 개입하고, 중국과 북한도 비공식적으로 각각 전투원을 파견하여 북베트남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전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반전 여론과 불투명한 전세에 미국은 휴전 협정을 맺고 베트남 전역에서 퇴각하지만, 북

베트남 및 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은 전쟁을 재개하여 1975년 4월 30일 남베트남 사이공을 함락하고 점령하면서 전쟁이 끝이 났다. 이 전쟁으로 남베트남군, 북베트남군, 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의 군사조직인 베트남(Viet Cong), 민간인 사망자가 수 백 만명 이었고, 참전국인 미군 사망자가 대략 6만여 명, 대한민국에서 참전한 군인도 5천여 명이 사망하였으며, 전쟁이 끝난 후에도 후유증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http://ko.wikipedia.org/wiki/베트남\\_전쟁](http://ko.wikipedia.org/wiki/베트남_전쟁)).

전쟁으로 인한 물리적, 정신적 피해는 매우 크며, 그 결과는 극히 대립적인 경우가 많아서 전쟁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달라진다(Mayo, 1988: 1). 일반적으로 개인적 기억은 분절적이고 불완전하므로 사회적 생성과정을 거쳐 집단적(collective)이고 문화적(cultural) 기억으로 바뀌는데(Bleakney, 2006: 22), 기념의 행위나 메모리얼을 만드는 것은 사회가 과거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의해 결정되므로 문화사회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Wagner-Pacifici and Schwartz, 1991: 376).

전쟁은 묘지, 박물관, 모뉴먼트, 영화, 기념행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기억되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전쟁메모리얼은 기억의 저류지로서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의 생명과 정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곳으로 과거의 기억과 감정을 회고하며, 희생자의 영혼을 치유하고 명예를 고양하는 장소이다(이상석, 2009). 더구나 전쟁메모리얼은 집단이나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심지어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전쟁메모리얼에서 무엇을 기념할 것인가, 누구를 기억할 것인가,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 그리고 역사적 문화적 맥락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많은 논란이 뒤따르게 된다(Tam, 2001: 1).

베트남에는 베트남전쟁 이후 전적지, 묘지, 평화공원 등 다양한 유형의 전쟁메모리얼이 조성되어 왔으며, 여기에는 고유한 기념문화가 반영되었다. 이러한 논거는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시스템이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립되었고, 불교, 유교, 도교 등 오랜 문화적 전통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전쟁이 일어난 곳으로서 장소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베트남에 있는 베트남전쟁 메모리얼에서는 정치사회적 시스템 및 전통적 배경의 차이로 인하여 미국에 있는 베트남전쟁 메모리얼이나 현대적 메모리얼과 다른 독특한 기념문화적 특성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에 있는 베트남전쟁 메모리얼을 대상으로 메모리얼의 유형적 특성, 설계 개념 및 내러티브, 장소 및 공간적 형태, 도입요소의 특성, 그리고 표현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메모리얼에 나타난 기념문화의 특성을 규명하였다. 연구결과는 전쟁메모리얼에 나타난 기념문화를 이해하고, 미국과 한국의 전쟁메모리얼에 나타난 기념문화를 비교 고찰할 수 있

으며, 향후 국가간 화해 및 평화증진을 위한 메모리얼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범위

베트남은 오랜 역사를 통해 중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 많은 나라와 전쟁을 하여 전국에 많은 전쟁메모리얼이 있다. 이 중에서도 베트남전쟁은 가장 최근에 벌어진 전쟁으로 이와 관련된 메모리얼은 전적지, 비극적 장소, 군인이나 희생자 묘지 등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공간적으로는 주로 호치민(Ho Chi Minh City), 하노이(Ha Noi), 다낭(Da Nang), 후에(Fue) 등의 도시와 1번 국도 및 9번 국도를 따라 조성되었다.

일반적으로 기념문화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므로 모뉴먼트와 같은 협의의 메모리얼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그 결과가 제한적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쟁박물관, 묘지, 평화공원 등 전쟁과 관련하여 기념성을 갖는 것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전국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전사한 군인을 위한 묘지인 '응이아 쟁 리엣 시(Nghia Trang Liet Si, 烈士墓地)' 및 '아잉 흥 리엣 시(Anh Hung Liet Si, 英雄墓地)'가 양적 측면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으나, 표준화된 양식으로 조성되어 있다. 따라서 중복적인 분석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배제하기 위해 군인묘지는 양식적 측면에서 독자성을 갖는 메모리얼을 제한적으로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아울러 조정설계의 관점에서 장소성이 없는 곳에 세워진 기념비, 기념탑, 동상 등 분석 가치가 낮은 것은 제외하고 전쟁과 관련하여 장소성이 있거나 외부공간을 포함하는 메모리얼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호치민에 있는 전쟁증적 박물관(War Remnants Museum), 꾸앙응아이(Quang Ngai Province)에 있는 썬미 메모리얼(Son My Memorial), 하노이에 있는 영웅기념 모뉴먼트(Commemorative Monument to Heroes and Martyr) 등 23개 베트남전쟁 메모리얼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표 1 참조).

### 2. 연구방법

베트남은 아직 국가적 발전이 더디어 베트남전쟁 메모리얼에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세계의 평화메모리얼을 소개하는 웹사이트인 Peace Monuments Around the World([http://peace.maripoc.com/x\\_pacific.htm](http://peace.maripoc.com/x_pacific.htm))에서 베트남전쟁 메모리얼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한-베 평화공원(고경태, 2006)과 썬미 메모리얼 및 미라이 평화공원([http://www.mylaipeacepark.org/peacepark\\_mylai.lasso](http://www.mylaipeacepark.org/peacepark_mylai.lasso)) 등 개별적 메모리얼에 대한 인터넷 자료를 수집하

표 1. 베트남 전쟁메모리얼의 개요

명칭	장소	유형	개념 및 내러티브	공간특성	조경디테일 특성
호치민 평화공원(Hoa Binh Cong Vien Ho Chi Minh)	호치민	기념평화공원	· 한·베트남 유대 평화	삼각형 부지	· 베트남에 유일한 한국정자, 복구 계획중 · 정자의 막새에 무궁화 문양
호치민 전쟁증적 박물관(War Remnants Museum)	호치민	전쟁박물관	· 전쟁의 직설적 표현 · 전쟁의 잔혹상	장방형 부지	· 박물관에 베트남 전쟁의 잔혹상 사진 및 모형전시 · 포로수용소 타이거 케이지(Tiger cage)재현, 평화 기증의자
통일궁(Independence Palace)	호치민	전적지	· 장소적 기념성 · 전쟁의 승리와 종결	건물 원형잔디광장	· 베트남 전쟁 당시 사이공 대통령궁의 모습 보존 · 원형의 잔디광장과 공격당시 울타리, Tank T54B 모형
호치민 군사박물관(Bao Tang Chien Dich Ho Chi Minh)	호치민	전쟁박물관	· 전쟁의 직설적 표현 · 전쟁의 승리	사각형 부지	· 박물관, 무기와 탄약 전시, 폰드, 전투장면 묘사 기념벽 · 박물관에 1975년 호치민 작전과 관련된 자료 전시
벤드의 추모사원(Ben Duoc Martyr Temple)	꾸찌	추모사원	· 어린이 희생자 추모 · 불교의 전통성 구현	축과 대칭	· 9층 탑(40m), 사당, 일주사, 오문(午門) · 추모비에 전쟁중에 희생된 5만명 어린이 이름 기록
꾸찌 터널(Cu Chi Tunnel)	꾸찌	전적지	· 전쟁의 승리 및 저항 · 장소적 기념성	부정형	· 전시관, 체험관, 전쟁무기, 사격연습장, 폭탄분화구 · 베트남인의 미국에 대한 영웅적 저항
썬미 메모리얼(Son My Memorial)	꾸앙응아이	비국적 장소	· 희생자 추모 · 전쟁의 공포와 절망감	장방형	· 마을 및 집터, 학살장면 재현, 수로, 추모기념조각, 종 · 모자이크타일벽, 콘크리트포장, 전시박물관(1976년 건립)
미라이 평화공원(My Lai Peace Park)	꾸앙응아이	평화공원	· 희생자 추모 · 생명성과 평화 증진	장방형	· 나무, 꽃, 연못, 정자, 참전미군과 국제평화단체 노력 · 썬미메모리얼과 대조적으로 음(陰)의 역할
열사묘지(Nghia Trang Liet Si)	전국	지역군인묘지	· 희생자 추모 · 지역 명예와 국가 헌신	장방형 대칭축 구성	· 정문, 묘비, 상징정자 및 기념비, 추모의 종 · 지역 군인묘지를 성, 현, 자치구별로 등급화
9월 메모리얼(The 2nd September Memorial)	다낭	추모메모리얼	· 선조들 업적 추모 · 국가에 대한 헌신	대칭축 노단식	· 모자상, 추모탑, 기념벽(호치민벽화), 천장화, 폰드 · 추모탑에 TO(土), QUOC(國), GHI(記), CONG(功)을 새김
하미마을 묘지(Ha Mi Village Cemetery)	꾸앙남	비국적 장소 (공동묘지)	· 희생자 추모, 장소성 · 화해와 평화	축과 대칭	· 정자, 향로, 추모비(이름, 연꽃그림), 좌우측으로 공동묘지 · 한국참전군인단체의 지원으로 건립한 위령비
케산전투기지 메모리얼(Khe Sanh Combat Base Memorial)	꾸앙찌	전적지	· 전쟁의 승리, 장소성 · 전쟁의 직설적 표현	기능적 배치 및 순환 동선	· 박물관, 포획된 미군무기, 병거, 기념탑 · 박물관에는 전쟁 당시의 상황 설명
뜨응썬 국립묘지(Tuong Son National Martyrs Cemetery)	꾸앙찌	국립묘지	· 희생자 추모 · 국가에 대한 헌신	8개 꽃잎형태	· 묘역별 묘비, 정자, 기념비, 다수의 기념조각 · 호치민 트레일과 중부전선 전사자 묘역, 가장 큰 국립묘지
빈목 터널(Vin Moc Tunnel)	빈링	전적지	· 전쟁승리 및 저항정신 · 장소적 기념성	부정형	· 터널, 체험관, 전시관, 폭탄분화구 · 미국에 대한 저항
히엔르영교 메모리얼(Hien Luong Bridge Memorial)	꾸앙찌	기념메모리얼	· 남북베트남 통일 열망 · 장소적 기념성	대칭축 조각	· 모녀의 조각, 야자잎, 기념벽과 호치민 어록 · 히엔르영교와 직각축을 이룸
12일 저항메모리얼(Dai Tuong Niem Kham Thien)	하노이	추모메모리얼	· 전쟁의 잔혹함 · 희생자 추모	대칭축	· 가로변 장방형 부지 죽은 아이를 껴안은 엄마조각 · 미군의 하노이 폭탄 투하의 잔혹상을 고발
호아로 감옥(Hoa Lo Prison)	하노이	전적지	· 미군포로수용 재현 · 장소적 기념성	건물	· 프랑스식민지 베트남 독립운동가 명예고양 · 베트남 전쟁 미군포로수용소 이용(미국 POA/MIA운동)
호치민 묘(Ho Chi Minh Mausoleum)	하노이	미술레움	· 베트남 영웅의 추모	대칭축 정형	· 호치민 1945년 독립선언한 바딘광장과 축 · 레닌의 묘에서 아이디어 얻음, 회색 화강석 단
영웅기념 모뉴먼트(Commemorative Monument to Heroes and Martyr)	하노이	추모메모리얼	· 희생자 추모 · 국가에 대한 헌신	대칭축 정형	· 해자(폰드)로 둘러진 중앙에 모뉴먼트 · 화강석 모뉴먼트에 4개 전투문 만들고 중앙에 향로 배치
하노이 군사박물관(Bao Tang Quan Doi Ha Noi)	하노이	전쟁박물관	· 전쟁의 직설적 표현 · 전쟁 승리 및 저항 · 영웅적 여성상 표현	박물관과 기능적 동선	· 베트남 국립박물관 6곳 중 한 곳 · 사이공 함락시 통일궁으로 돌진한 탱크 전시 · 미군비행기 잔해를 이용한 설치예술작품(여성전사) · 자식을 베트남전쟁에 희생시킨 엄마상
하노이 승리 모뉴먼트(Victory Monument Over B-52)	하노이	기념모뉴먼트	· 전쟁승리 및 저항	기념조각	· 1967년 10월 미해군폭격기 격추, 조종사 존 메케인 체포 · 무릎 꿇은 조종사 모습을 통한 미국의 패배의 모습
동우언시장 모뉴먼트(Monument at Dong Xuan Market)	하노이	기념모뉴먼트	· 전쟁승리 및 저항	기념조각	· 전투적 이미지 부조 · 베트남 곳곳에 유사한 기념조각이 있음
한·베 평화공원(Han-Viet Hoa Binh Cong Vien)	하노이	평화공원	· 희생자 추모 · 한국-베트남의 평화증진	정방형	·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자 추모 · 한겨레신문 등 국민성금 모아 추모공원 건립(이전 있음) · 진실과 우정의 등지, 생명의 숲대, 타일벽화

였다. 또한 베트남전쟁과 관련된 대표적인 메모리얼을 다룬 문헌자료(Bleakney, 2006)를 통하여 호아로 감옥(Hoa Lo Prison), 꾸찌 터널(Cu Chi Tunnel), 전쟁증적 박물관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였다. 이러한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10년 12월 24일부터 2011년 1월 7일까지 베트남을 답사하여 베트남전쟁 메모리얼을 조사하였으며, 사진촬영 및 간이측량을 시행하였다.

전쟁메모리얼은 규모에 상관없이 그 형태, 기능, 의미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으며(Yoshimura, 1997: 1), 이러한 설계적 요소 이외에 기념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담론이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전쟁 메모리얼의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고, 설계요소로서 설계개념 및 내러티브, 장소 및 공간적 형태, 도입요소, 표현내용에 나타난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메모리얼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기념문화를 분석하였다(그림 1 참조).

메모리얼의 유형 분석은 시대적 양식(Bleakney, 2006: 27-31), 장소적 특성(Bleakney, 2006: 149), 사회적 목적 및 이용 목적(Mayo, 1988: 4-17)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 베트남에 있는 베트남전쟁 메모리얼은 통시적 관점에서 시대별로 고유한 특성이 약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명예고양, 희생자 추모, 국가적 정체성, 화해 및 평화 등 사회적 목적과 전적지, 공원, 묘지 등 메모리얼의 물리적 환경을 고려하여 유형화하고 분석하였다.

설계개념 및 내러티브에 대한 분석에서 설계과정이 충실하고 비교적 명확하게 개념이 드러나는 기념 및 추모메모리얼은 설계개념을 주로 분석하였으나, 자연이나 문화적 영향을 크게 받은 버니큘러한 경관(vermacular landscape)이나 장소적 의미를

강조하는 메모리얼에서는 문화적 경험에 기초하여 표현의 영역이 넓고 자유로우며, 메모리얼을 대표적 양식으로 인식하는 랜드스케이프 내러티브의 관점(Potteiger and Purinton, 1998: 1-10)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베트남은 메모리얼을 조성하면서 공공의 참여나 토론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어 설계개념이 단순한 경우가 많으므로 내러티브를 찾아내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경우가 많았다.

장소 및 공간적 형태에 대한 분석에서는 부지의 환경요소인 입지 및 장소적 특성을 분석하고, 메모리얼을 정형과 부정형, 축과 대칭 등 공간의 형태적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개체적 요소나 작은 공간이 구성되어 전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메모리얼에 위치한 다양한 요소와 공간적 형태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였다.

도입요소에 대한 분석은 건축물, 기념벽, 수목, 연못, 폭포, 조명, 기념식물, 역사적인 물건이나(Jorgensen, 1998) 집단이나 사회에 의해 공유된 상징물인 국기 및 엠블렘, 종, 탑, 정자 등(Whittick, 1961)으로 다양한 매체를 대상으로 하여 설계개념 및 의미를 전달하는 상징적 표현매체로서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메모리얼에 만들어진 기념벽, 기념탑, 기념조각, 포장 등 조경디테일에 나타난 표현기법과 상징적 문구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메모리얼의 특성을 통하여 나타난 기념문화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기념문화는 문화를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동안 조율된 사회적 기억의 총량이라고 보는 문화인류학적 관점, 자연환경에 대한 적응체제로 보는 관점, 그리고 인식과 상징의 관념적 체계로 보는 관점(이상석, 2005: 86-87) 등 문화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전쟁 메모리얼에 나타난 기념 및 추모와 관련된 관념적 체계(觀念的 體系)의 관점에서 기념문화를 의미하며, 전쟁이 극도의 정치적 갈등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측면, 메모리얼의 조성의 의식(儀式)으로서 전통 및 종교적 측면,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 측면에서 기념문화적 특성을 밝히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메모리얼의 유형적 특성

베트남전쟁 메모리얼을 명예고양, 희생자 추모, 국가적 정체성, 화해 및 평화 등 사회적 목적과 전적지, 공원, 묘지 등 메모리얼의 물리적 환경에 따라 분석한 결과, 전적지, 전쟁박물관, 비극적 장소, 군인묘지, 기념모뉴먼트, 평화공원 등 10개의 유형이 도출되었으며, 이 중에서 군인묘지, 전적지, 전쟁박물관이 다수를 점하였다(표 2 참조).

군인묘지는 가장 많은 베트남전쟁 메모리얼로서 공간적으로 축과 대칭을 이루며 고유한 양식적 특징을 갖는 대표적인 메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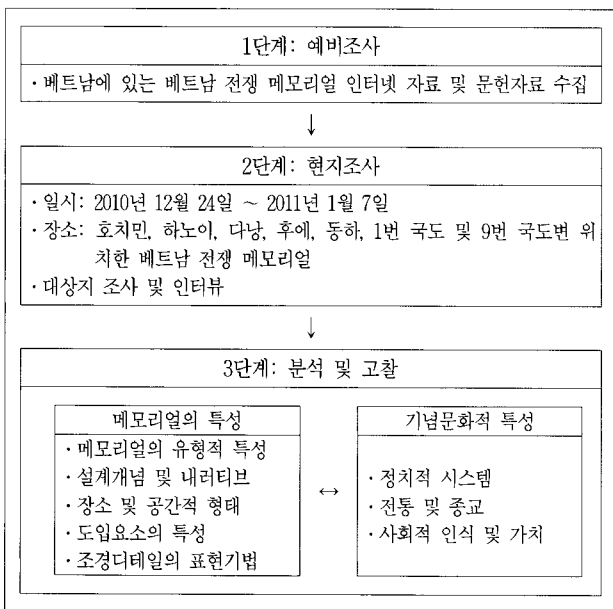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방법 및 과정

리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전쟁 중 사망한 북베트남 군인 및 베트남의 유해가 묻힌 곳으로 등급에 따라 뜨엥썬 국립묘지(Tuong Son National Martyrs Cemetery)(그림 3q 참조)와 같은 국립묘지와 후옌탕빙 영웅묘지(Anh Hung Liet Si Huyen Thang Binh)(그림 3m 참조)와 같은 지역군인묘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지역군인묘지는 베트남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주요 도로인 A1국도에 인접하여 많은 수가 조성되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전적지 5개소 및 전쟁박물관 3개소로서, 공통적으로 박물관을 설치하고 전쟁무기를 전시하고 있었다. 전적지는 전투가 벌어졌던 장소에 조성되었으며, 케산전투기지 메모리얼(Khe Sanh combat base memorial)(그림 3p 참조)은 북베트남군의 승리, 꾸찌 터널 및 빈목 터널(Vin Moc Tunnel)(그림 3u 참조)은 베트남의 저항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달리 전쟁박물관은 대도시인 하노이에 있는 하노이 군사박물관(Bao Tang Quan Doi Ha Noi)과 호치민에 있는 전쟁증적 박물관 및 군사박물관(Bao Tang Chien Dich Ho Chi Minh)(그림 3f 참조)이 대표적이었다.

세 번째 유형은 비극적 장소 2개소와 평화공원 3개소로 나타났다. 베트남전쟁에서는 전방과 후방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피아간 식별이 어려워 민간인 인명피해가 컸으며, 이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썬미 메모리얼(그림 3i 참조)은 1968년 4월 16일 아침 미군에 의해 504명의 민간인이 희생되어(Quang Ngai Vestige Sites Management Board, 2009: 13-34) 베트남 사회 및 국제적으로도 주목받는 곳으로서,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박물관을 설치하여 사건 발생 당시 공포감 및 절망감을 전달하고 있다. 이 메모리얼과 인접하여 2001년 4월 16일 미국참전용사 및 베트남인, 반전운동가 등이 참여하여 만든 미라이 평화공원이 조성되었다. 여기에는 다른 메모리얼과 달리 모뉴먼트 및 조각은 배제하고, 나무와 꽃을 심고 연못을 두어 평화를 추구하고 생명감이 있도록 하였다. 마찬가지로 한국군의 전투로 인해 죽은 민간인을 추모하기 위해 투이호아(Tuy Hoa)에 한·베 평화공원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평화공원은 전쟁승리와 저항정신만을 강조해 온 베트남에서 새로운 메모리얼로 인식되었다.

이밖에 추모메모리얼은 9월 메모리얼(The 2nd September memorial), 12일 저항메모리얼(12 days fighting memorial), 영웅기념 모뉴먼트 등 3개로 나타났다. 추모메모리얼은 전쟁 중 죽은 희생자를 추모하고 국가에 대한 헌신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국가적 기념성을 높이기 위해 강한 중심축을 강조하고 대칭적으로 공간을 구성하였으며, 중앙에 기념조각이나 모뉴먼트를 설치하는 전통적 공간 방식을 따랐다.

미국에 있는 베트남전쟁 메모리얼은 설계를 통하여 주로 희생자를 추모하고 명예를 고양하는 단순한 유형이 대부분이었으나, 베트남에는 오랜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건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메모리얼이 만들어졌다. 대표적인 유형은 전통적 양식에 근거한 군인묘지, 장소적 의미를 강조한 전적지, 전쟁승리와 잔혹함을 표현한 전쟁박물관, 비극적 사건과 연계된 묘지 및 평화공원이 특징적인 유형으로 판단되었다.

## 2. 설계 개념 및 내러티브

베트남전쟁 메모리얼에서는 희생자 추모, 국가에 대한 헌신, 전쟁의 승리 및 저항, 장소적 기념성, 화해와 평화가 주요한 설계개념이었으며, 메모리얼에 따라 복수의 설계개념을 도입하였다(표 2 참조).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 행위이면서 메모리얼에서 가장 중요한 설계개념으로 11개소에서 나타났다. 뜨엥썬 국립묘지와 전국 각지에 조성된 지역별 군인묘지가 대표적 사례였으며, 비극적 사건의 장소였던 썬미 메모리얼과 하미마을 묘지(Ha Mi Village Cemetery)에서도 희생된 민간인을 추모하기 위한 공동묘지가 조성되었다. 희생자 추모와 함께 자주 사용된 설계개념은 국가에 대한 헌신으로서 7개소에서 나타났는데, 하노이에 있는 영웅기념 모뉴먼트(그림 3z 참조)와 DMZ지역에 있는 뜨엥썬 국립묘지가 대표적이었다.

베트남의 승리와 저항정신을 보여주는 것은 베트남 정부의 국가정책으로서 14개소 메모리얼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개념은 전쟁무기 및 사진 등 사실적 전시물이나 전쟁의 흔적을 이용하는 전쟁박물관과 전적지에서 잘 나타나고 있었는데, 대표적인 장소는 호치민 전쟁증적 박물관 및 군사박물관, 하노이 군사박물관, 케산전투기지 메모리얼, 꾸찌 터널이었다. 호치민에 있는 전쟁증적 박물관(그림 3c 참조)에는 외부공간에 미군 전쟁무기를 전시하고, 내부에는 미군에 의한 전쟁의 잔혹한 모습을 전시하여 미군참전용사와 관광객에게 부담스러운 내용이 병치되어 있는 반면, 하노이 군사박물관(그림 3aa 참조)에서는 북베트남이 베트남전쟁에서 승리했음을 강하게 표현하였다. 꾸찌 터널(그림 3h 참조)에서도 잔인하고 속임수를 쓰는 방법을 보여주면서 베트남이 미군에 저항했던 모습을 강조하였고, 하노이에 있는 하노이 승리 모뉴먼트(그림 3ad 참조)에서도 미군 조종사가 무릎을 꿇은 모습을 표현하여 전쟁승리감을 드러내었다. 마찬가지로 호아로 감옥은 전쟁당시 미국에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전쟁포로 수용소였으나(Bleakney, 2006: 168), 베트남에서는 미국과의 전쟁은 베트남의 오랜 저항의 역사에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이와 같이 전적지나 박물관에서는 베트남전쟁에 대한 미국과 베트남의 대립적 시각이 드러났다.

베트남은 전쟁터로서 많은 전쟁의 기억이 남겨져 있으므로 전체 메모리얼 중 썬미 메모리얼(그림 3j 참조), 하미마을묘지, 통일궁(Independence Palace) 등 16개의 메모리얼에서 장소적 기념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지나치게 장소적 의미만을 강조

하다 보니 메모리얼은 감정적이고 직설적이며 설계적 관점에서 매력적이지 못하였다. 한편, 전쟁메모리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사회적 목적으로 인식되는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는 개념은 미국 및 한국의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여 만들어진 미라이 평화공원 등 3개소에 불과하며, 베트남 스스로 조성한 인도주의적 관점의 메모리얼은 드물었다.

이와 같이 메모리얼에 나타난 설계개념 및 내러티브는 희생자를 추모하고 국가에 대한 헌신을 기억하였으며, 의도적으로 전쟁 승리와 저항정신을 강조한 반면, 현대적 메모리얼에 추구되는 중요한 개념인 평화 및 화해에 대한 개념은 드물게 적용되었다. 예외적으로 국제적인 민간단체의 협력에 의해 만들어진 미라이 평화공원(그림 3l 참조)과 한·베 평화공원(그림 3af 참조)에서 비극적 사건을 극복하고 미래의 평화를 추구하고 있어, 향후 베트남이 정치사회적으로 더욱 개방되고 미국 및 한국과 교류가 증진될 경우 새롭게 조성하는 메모리얼의 주요한 설계개념으로 인식되었다.

### 3. 장소 및 공간적 형태

메모리얼의 위치는 전적지 및 묘지는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이 치열하게 대립하였던 DMZ와 주요한 전쟁루트였던 호치민 트레일, 그리고 베트남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주요한 도로인 1번 국도 주변에 집중적으로 조성되어 있었으며, 하노이 및 호치민 등 도시에 전쟁박물관 및 모뉴먼트가 조성되었다. 또한 메모리얼의 공간적 형태는 축과 대칭을 이루는 것이 10개소, 상징적 지형을 활용한 곳이 1개소, 자연 지형 6개소이며, 나머지는 기능적으로 공간이 구성되었다(표 2 참조).

후옌탕방 영웅묘지(그림 2c 참조)와 같이 베트남에 가장 많은 군인묘지는 진입문에서 추모탑 및 정자를 연결하는 축을 중심으로 묘역이 좌우대칭을 이루는 정형적 형태를 취하고 있고, 공동묘지인 하미마을 묘지에서도 유사한 공간적 형태를 보여주었으며, 추모사원에서 대칭축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터이 파고다(Thay Pagoda), 포밍 파고다(Pho Minh Pagoda), 께오 파고다(Keo Pagoda) 등 전통 사찰에서 주진입문, 탑, 사원이 축을 이루고, 민망 황제릉(Minh Mang Tomb), 티에우찌 황제릉(Thieu Tri Tomb), 동카잉 황제릉(Dong Khanh Tomb) 등에서도 주진입문과 묘지를 연결하여 주축을 강조하는(Nguyen et al., 2010: 109-116) 전통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더욱 상징적으로는 하노이에 있는 영웅기념 모뉴먼트(그림 2d 참조)는 국가적 영웅과 희생자를 추모하고 그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호치민묘(Ho Chi Minh Mausoleum)(그림 3y 참조) 및 바딘광장(Quang Truong Ba Dinh)과 축을 이루면서 외부로 4각 폰드로 둘러치고 계단식 다리로 연결하였으며, 높은 곳에 4방으로 열

린 전통적 문이 만들어진 모뉴먼트를 설치하였다. 이 밖에도 공간의 축을 중시한 것으로 베트남전쟁 메모리얼 중 드물게 현대적 메모리얼의 경향을 보여주는 히엔르엉교 메모리얼(Hien Luong Bridge Memorial)이 대표적이다. 이곳은 북위 17°선 분단의 기준점으로서 전쟁 중 남북 분단의 대립지역이었던 벤하이강에 있는 히엔르엉교의 축을 메모리얼로 연장하여 남·북 베트남의 이념적 대립을 보여주면서도 통일을 지향했던 과거와 현재의 의지를 나타내었다.

이와 달리 DMZ지역에 있는 뜨엥썬 국립묘지에서는 상징적인 공간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8개 꽃잎 형태를 이루는 자연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메모리얼은 언덕으로 둘러싸인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사자를 출신지역별로 5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매장하였다. 여기서 8개의 꽃잎은 연꽃받침을 의미하며 불교와 도교의 영향을 받은 베트남의 기념 문화를 잘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전적지나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던 곳에서는 장소가 갖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 특징적인 공간형태는 나타나지 않았다. 비극적 장소인 썬미 메모리얼(그림 2b 참조)과 전적지인 케산전투지 메모리얼에서는 일부 지역을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어 농업에 기반을 둔 베트남 풍경이 병치되었다.

이와 같이 베트남전쟁 메모리얼은 DMZ 및 전쟁루트였던 호치민 트레일과 베트남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주요한 도로인 1번 국도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노이 및 호치민 등 도시지역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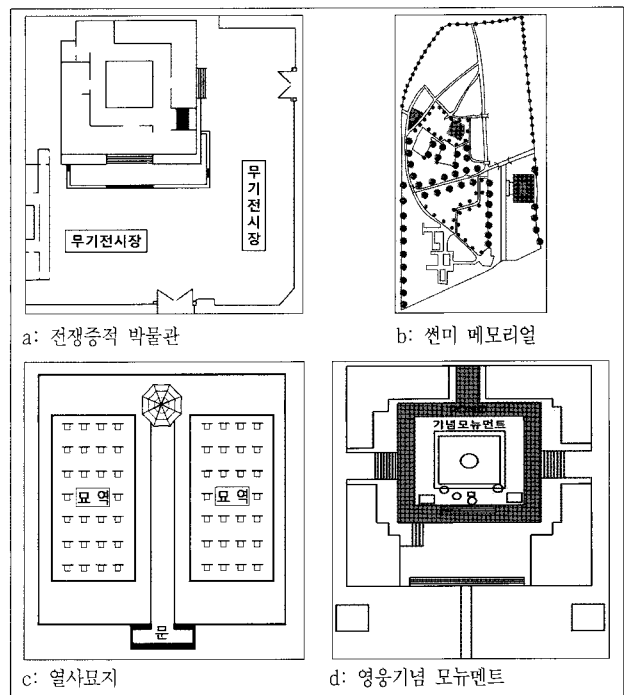


그림 2. 베트남전쟁 메모리얼의 현황도면

자료: 필자 작성



그림 3. 베트남전쟁 메모리얼 사례

자료: a~ae: 필자 촬영

g: <http://travel.webshots.com/photo/2780540260040368265VHTUVR?oldest=true>

af: <http://zine.media.daum.net/h21/view.html?cateid=3000&newsid=20060321110710965&p=hani21>



전쟁박물관과 모뉴먼트가 조성되었다. 또한 묘지 및 추모메모리얼에서는 진입문과 기념탑, 기념비, 정자를 연결하는 축을 중심으로 좌우에 묘역이 배치되는 전통적 공간체계를 따랐으며, 뜨엥썬 국립묘지에서는 8개 꽃잎 형태의 자연 지형을 활용하여 불교 및 도교적 특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전적지 및 비극적 장소에서는 지나치게 장소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공간적 형태보다는 상징적 요소를 도입하여 기념성을 구현하였다.

#### 4. 도입요소의 특성

메모리얼에 사용된 도입요소는 기념조각 14개소, 전통적 요소 8개소, 무기 및 박물관 7개소, 묘비 4개소, 기념탑 3개소 등에서 사용되었으며, 묘지 등에서는 기념조각이나 묘비가 다수 사용되었고, 전쟁박물관 및 전적지에서도 무기가 다수 사용되었다(표 2 참조).

베트남전쟁 메모리얼에 사용된 기념조각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대표적 양식요소로서, 호치민 군사박물관, 썬미 메모리얼, 히엔르엉교 메모리얼, 뜨엥썬 국립묘지, 12일 저항메모리얼, 하노이 군사박물관, 하노이 승리 모뉴먼트, 동쑤언시장 모뉴먼트, 한·베 평화공원 등 14개소에서 나타났다. 특히 뜨엥썬 국립묘지에는 106ha에 달하는 전체 묘역에 사실적이며 추상적인 다양한 조각들이 설치되었고, 썬미 메모리얼에는 비극적 사건 발생 30주년을 기념한 죽은 자를 안고 저항하는 조각상을 설치하였으며, 하노이에 있는 12일 저항메모리얼(그림 3w 참조)에는 죽은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상이 있어 전쟁의 절망감과 저항정신을 보여주었다. 한편, 히엔르엉교 메모리얼에는 남과 북을 연결하던 히엔르엉교의 축을 따라서 모녀상 및 아버지상을 배치하여(그림 3v 참조) 엄마와 딸이 아버지와 아들을 기다리며 통일을 열망하는 이미지를 전달하였다. 이와 달리 하노이 군사박물관에는 포획한 무기로 만든 조각을 배경으로 호전적이면서 승리를 의미하는 여성전사의 사진을 병치한 설치예술작품(그림 3ab 참조)과 9명의 아들을 국가에 바친 엄마의 조각상(그림 3ac 참조)을 세워서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뛰어넘는 영웅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기념탑은 군인묘지와 추모메모리얼에서는 필수적 요소로서, 9월 메모리얼(그림 3n 참조)과 후엔탕빙 영웅묘지 등 3개소에서 사용되었고, 기념벽은 9월 메모리얼 및 히엔르엉교 메모리얼 등 5개소에 설치되었으며, 주로 영웅적 전투상 및 국가 건립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사용하였다. 썬미 메모리얼에서는 많은 민간인이 죽은 비극적 사건을 모자이크 타일 벽화(그림 3k 참조)로 그렸고, 푸이호아에 있는 한·베 평화공원에는 한국 및 베트남 예술가와 어린이가 참여하여 모자이크 타일벽(그림 3af 참조)을 만들었다.

무기 및 박물관은 호치민 전쟁증적 박물관 및 군사박물관, 하노이 군사박물관, 케산전투기지 메모리얼 등 7개소에 도입되

었는데, 박물관이나 전적지에서 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전쟁증적 박물관에서는 미군에 의한 전쟁의 잔혹상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대조적으로 하노이 군사박물관에는 사이공 함락시 통일공에 진격한 탱크를 전시하여 전쟁 승리를 강조하였다.

전통적 요소도 전사자나 민간인 사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8개소에 사용되었다. 대표적으로는 전국에 만들어져 있는 군인묘지나 뜨엥썬 국립묘지(그림 3r 참조)에 문, 묘비, 정자, 종, 향로가 사용되었으며, 민간인 추모메모리얼인 썬미 메모리얼의 종, 미라이 평화공원의 정자, 하미마을 묘지(그림 3o 참조)의 정자 및 향로가 사용되었으며, 호치민(당시 사이공)에는 1972년 베트남에 건설지원단으로 파견된 비둘기부대에 의해 한국과 베트남의 평화우호증진을 위해 호치민 평화공원(그림 3b 참조)에 한국 정자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전통적 요소를 가장 상징적으로 사용한 메모리얼은 영웅기념 모뉴먼트로서 4방으로 열린 전통적 문이 만들어진 모뉴먼트를 설치하여 베트남에서 중요시하는 죽은 자를 위한 집으로서 전통적 기법을 도입하였다. 또한 벤트억 추모사원(Ben Duoc Martyr Temple)(그림 3g 참조)에서는 9층 추모탑, 사원, 정자 등을 도입하여 불교에 기반을 둔 베트남의 기념문화를 잘 나타내고 있으며, 전통적 건축양식인 일주사(一柱寺)를 세우고, 후예에 위치한 응우옌 왕조(Nguyen dynasty)의 왕궁에 있는 오문(午門)을 설치하여 전통성을 구현하였다.

묘비는 묘지 및 추모메모리얼의 대표적 요소로 사용되었다. 전국에 있는 군인묘지 및 뜨엥썬 국립묘지(그림 3s 참조) 등 국립묘지, 썬미 메모리얼 및 하미마을 묘지 등에는 묘비가 세워져 개인의 희생과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일부 묘지는 아직도 유해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아 묘비만 세워져 무명 전사자를 가족으로 둔 베트남인들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 밖에 민간단체에 의해 만들어진 미라이 평화공원에는 평화를 도모하고 살아있는 메모리얼을 의미하기 위해 나무를 식재하고 한·베 평화공원에는 평화를 상징하고 생명성을 나타내기 위해 설치조각으로 '진실과 우정의 등지' 및 '생명의 숲대'를 설치하였다.

이와 같이 메모리얼에는 다양한 요소가 도입되었는데, 기념조각 및 기념탑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대표적 양식으로 전쟁승리감과 저항정신을 표현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고, 포획한 무기를 전시하고 박물관에 사진 및 모형 등 자료를 전시하여 전쟁의 리얼리티를 살리고 승리감을 고취하였으며, 유교 및 불교 등 전통 문화에 근거한 상징요소를 도입하였다.

#### 5. 표현내용

메모리얼에서는 기념 및 추모를 위해 만든 기념벽 및 기념탑 등에 상징적 문구를 기록하거나 벽화를 그린 사례가 10개소에 나타났고, 사진 및 무기전시는 박물관이나 전적지 9개소에

표 2. 베트남 전쟁메모리얼의 분석요소별 기념문화의 특성

분석항목	기념문화	빈도 <sup>a</sup>	이데올로기의 복합	전통 문화와 관습적 사고	영웅주의의 부각	전쟁의 갈등과 치유
유형	군인묘지	2	○ <sup>b</sup>	○	○	-
	전쟁박물관	3	○	-	△ <sup>c</sup>	○
	전적지	5	○	-	○	○
	비극적 장소	2	-	-	△	○
	평화공원	3	-	-	-	○
	추모메모리얼	3	○	○	△	○
	추모사원	1	-	○	-	-
	기념메모리얼	1	-	-	△	△
	미술레움	1	△	△	○	-
기념모뉴먼트	2	○	-	-	-	
설계개념	희생자 추모	11	○	○	△	-
	국가에 헌신	12	○	○	○	-
	전쟁승리와 저항	14	○	-	-	-
	장소적 기념성	16	-	○	-	-
공간형태	화해와 평화	3	-	-	-	○
	추과 대칭	10	○	○	-	-
	상징적 지형	1	-	○	-	-
	자연 지형	6	-	-	-	△
도입요소	기능적 형태	6	○	-	-	-
	기념조각	14	○	-	○	-
	기념탑	3	○	-	△	-
	무기/박물관	7	○	-	△	△
	전통적 요소	8	△	○	-	△
표현내용	묘비	4	○	○	○	△
	기념(추모)벽화	10	○	△	○	○
	사진전시	9	○	-	△	○
	무기전시	6	○	-	△	△
	포장문양	2	-	-	-	○
	상징적 문구	10	○	△	△	-

자료: <sup>a</sup>: 빈도는 해당 분석항목이 등장하는 메모리얼의 개소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설계개념 및 내러티브, 도입요소, 표현내용은 메모리얼에 따라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전체 대상지 숫자를 초과함

<sup>b</sup>: ○는 분석항목과 기념문화의 관련성 높음

<sup>c</sup>: △는 분석항목과 기념문화의 관련성 보통이거나 다른 것과 중복되어 관련되는 경우

서 사용되어 전쟁 장면을 사실적으로 설명하여 긴장감을 높였으며, 이 밖에 메모리얼 10개소에서 기념탑이나 기념벽에 상징적 문구가 사용되어 베트남전쟁 메모리얼의 대표적인 표현기법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기념벽화는 대표적으로는 호치민 군사박물관, 하노이 군사박물관, 뜨엥썬 국립묘지, 히엔르엉고 메모리얼, 9월 메모리얼, 케산전투기지 메모리얼 등으로 전쟁의 승리와 저항의 모습을

그렸다. 그러나 썸미 메모리얼에서는 비극적 사건 장면을 모자이크 타일벽에 표현하였으며, 우리에게도 불편한 기억이 있는 하미마을 묘지에 있는 위령비 뒷면에는 1968년 한국군 전투로 죽은 다수의 민간인을 추모하고 희생자들이 죽은 뒤 극락정도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언뜻이 그려져 있다.

사진 및 무기전시는 대표적으로 호치민 전쟁증적 박물관에는 박물관 내부에 고엽제 피해, 하노이 폭격, 미라이 학살을 주제로 하여 전쟁으로 인한 잔혹함과 피해를 전시하고, 하노이 군사박물관에는 베트남전쟁의 주요 전투를 설명하고 있으며, 케산전투기지 메모리얼에는 전적지에 위치하여 당시의 전투 모습을 전시하였다. 특징적으로 썸미 메모리얼에는 비극적 사건 발생 당시 모습을 재현하고자 집터와 수로를 그대로 보존하였으며, 현장을 연결하는 통로인 콘크리트포장 위에는 군화 및 맨발 자국이 복잡하게 얽혀 그려져 있어 당시의 혼미한 전투상황과 군화에 짓밟힌 민간인 희생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표적인 상징적 문구는 'TO-QUOC-GHI-CONG(土-國-記-功)'으로 이것은 "조국은 당신의 업적을 기억한다"는 의미인데, 전사자의 국가에 대한 헌신과 그들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나타내었다. 이밖에 히엔르엉고 메모리얼에는 기념벽에 호치민의 어록에 등장하는 "베트남은 하나이며, 베트남인도 하나이다. 강이 마르고 산이 공격에 찢길지라도 진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The Vietnam country is one, the Vietnamese is one, rivers can be drought, mountains can be torn, yet that truth will never change)"가 새겨져 남북으로 분단되어 적대적으로 대처 하였던 곳에서 통일에 대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미국에서는 베트남전쟁과 관련하여 자주 등장하는 언어적 표현인 '~of honor and heroism, ~of fighting for freedom'을 통하여 개인의 명예 및 희생을 기리고, 자유를 위한 참전의 정당성을 나타내어 보수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는 반면(Bleakney, 2006: 161), 베트남에서는 조경디테일에 나타난 언어적 표현은 통하여 전사자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그들의 승리감을 표현하고, 그 이면에는 사회주의 승리라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하였다. 또한 호치민 전쟁증적 박물관에는 베트남전쟁과 관련하여 사진전시 주제로서 'Quagmire'를 사용하여 미군 참전용사들이 베트남에서 겪은 혼란스럽고 어려운 전투 상황과 베트남전쟁에 대한 미국사회의 혼돈을 묘사하였다.

이와 같이 메모리얼에는 기념조각이나 기념벽의 디테일을 통해 전쟁승리 및 저항의 모습과 전쟁의 잔혹함을 전달하였으며, 사진 및 무기전시 등을 통하여 전쟁의 모습을 직설적이며 긴장감있게 표현하였다. 또한 상징적 문구인 'TO-QUOC-GHI-CONG'을 통하여 전사자의 업적과 국가의 의무를 나타냈으며, 'Quagmire'를 미군 참전용사들이 겪은 혼란스럽고 어려운 경험과 베트남전쟁에 대한 미국사회의 혼돈을 묘사하는 정치사회적인 메타포로서 사용하여 그 이면에는 사회주의의 승리라는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내재되었다.

## 6. 기념문화의 특성

베트남전쟁 메모리얼의 유형, 설계개념 및 내러티브, 장소 및 공간적 형태, 도입요소, 조경디테일에 나타난 표현내용을 통하여 정치사회적 측면, 메모리얼 조성의 의식으로 전통과 종교적 측면, 메모리얼에서 추구되는 가치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기념문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베트남전쟁 메모리얼에 나타난 기념문화적 특성은 애국주의 및 사회주의 등 이데올로기가 복합적으로 나타났고, 전통문화와 관습적 사고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영웅주의가 강하게 나타난 반면, 베트남전쟁에 대한 베트남 내부 및 국제적 갈등과 치유를 위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메모리얼의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 1) 이데올로기의 복합

베트남은 19세기 이후, 프랑스 및 일본의 식민지였고 이후 공산혁명이 일어났으며, 베트남 전쟁을 치루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Tam, 2001: 2), 베트남인 스스로 저항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처럼 근대사가 모자이크처럼 복잡하게 짜여 있다. 이에 따라 군인묘지, 전적박물관, 전적지, 추모메모리얼에서 희생자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고 전쟁 승리를 홍보하기 위해 기념조각, 기념탑, 기념벽, 박물관, 무기전시를 통하여 민족주의(nationalism), 애국주의(patriotism), 사회주의(socialism) 등 복합적인 이데올로기를 나타내었다. 미국에서는 워싱턴 D.C.에 있는 베트남전쟁 메모리얼을 기점으로 보수주의(conservatism)에서 포스트 민족주의(post-nationalism)로 양식적 변화를 겪었으며, 전쟁과 장소에 대한 기억은 국가적 정체성보다는 세계적인 동시에 지역적으로 바뀌고 있다(Gillis, 1994: 13). 그러나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Đổi mới)'정책을 통하여 '과거를 닫고 미래를 향하여'라는 슬로건으로 경제개방을 하였지만, 사회주의국가의 정치시스템이 유지되고 있어 공공의 전쟁메모리얼을 만드는 데 패쇄적이며 현대적인 메모리얼 설계가 어렵다. 또한 꾸찌 터널에서 베트남의 용맹성 및 미국에 대한 저항정신을 강조하였음에도 메모리얼을 관광지로 개발하고 상업화함으로써, 전쟁에서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승리했지만 경제적으로는 미국 및 자본주의 국가로 부로의 영향을 받고 있다.

### 2) 전통문화의 영향

베트남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인도 및 중국의 불교를 받아들여 전 국민의 70%가 불교를 믿고 있으며, 중국의 유교와 도교를 받아들이고, 14세기에는 천주교를 받아들여 종교적으로 다양한 색채를 띠게 되었다(Nguen *et al.*, 2010: 36). 이밖에도 동양적 철학인 음양오행에 크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동아시아

의 자연관인 풍수사상이 묘지의 명당을 잡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전통문화는 추모메모리얼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데 잘 나타났다. 베트남은 한국과 유사하게 가족 및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제사를 모시는 유교적 전통에 따라 희생된 가족을 추모하는 행사 및 의식을 중요시 하였다. 벵퓌 추모사원과 같은 추모 사찰을 건립하거나 메모리얼에서 종이나 연꽃 등 불교적 상징을 활용하였으며, 도교와 관련하여 마을과 지역, 그리고 국가를 위해 기여한 영웅을 모시기 위해 많은 사당을 만들고 영웅의 위패를 모시는 제단을 설치하였다. 이와 같이 불교 및 도교의 문화는 군인묘지, 추모사원, 추모메모리얼의 공간구조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새로운 개념의 메모리얼을 만들기 위한 실험적 시도를 기피하고 관습적으로 전통을 따르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 3) 영웅주의의 부각

베트남은 마을, 지역, 그리고 국가를 위해 기여한 인물을 모시기 위해 사당을 만들고 위패를 모시는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베트남전쟁 후에는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들과 호치민(Ho Chi Minh), 레주언(Le Duan), 당투이쩨(Dang Thuy Tram)과 같은 국가적 인물에 대한 메모리얼을 만들어 영웅화하는 기념작업을 해왔으며, 이것은 묘지 및 추모메모리얼에서 주요한 개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대상에 포함된 호치민 마을레움 이외에도 국가적 영웅으로 불리는 호치민과 관련된 기념관이 전국에 다수 조성되어 있으며, 레주언을 위한 기념공원이 동하(Dong Ha)에 조성되어 있다.

또한 메모리얼에서 베트남전쟁과 관련된 영웅으로서 여성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일반적으로 베트남은 유교적 전통을 가진 국가로서 부계적인 가족체제로 인하여 여성은 가정적이고 외부활동은 남성의 영역이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여성의 역할이 가정으로 국한되지 않고 상대방을 교란하거나 전투에 직접 참가하였다.

이러한 사례로 하노이 군사박물관에서 비행기 잔해를 끄는 여성전사의 모습을 설치미술로 표현한 것이나, 베트남전쟁 중 여군의사로 사망한 당투이쩨의 메모리얼은 전쟁에 참가한 여성의 모습을 잘 나타낸다. 또한 하노이 군사박물관에 9명의 자식을 프랑스와 미국의 전쟁에 바친 응우옌찌투(Nguyen Thi Thu)의 조각상, 12일 저항메모리얼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상, 전쟁증적 박물관에 녹슨 무기를 이용한 'Mother'라는 제목의 조각은 엄마로서 여성의 모습을 강조하였다. 전쟁이 끝나고 그들의 역할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으나 호치민의 어록에서 "우리 민족은 아이를 출산하고 우리나라의 영웅세대를 양육한 남과 북의 엄마에게 감사한다(Tam, 2001: 171)"고 한 것처럼 베트남전쟁에서 여성의 노력과 엄마로서의 기억은 메모리얼에서 유효하게 나타났다.

#### 4) 베트남전쟁에 대한 갈등과 치유

베트남과 미국 및 한국은 서로 전쟁에서 싸웠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인식과 전쟁메모리얼에 있어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에 있는 베트남전쟁 메모리얼에서는 전쟁승리와 저항정신을 강조하였다. 꾸찌 터널 및 하노이 군사박물관 등 베트남전쟁 메모리얼에서 미국에 대한 저항정신과 승리를 고양하고, 영웅적이고 애국적인 방법으로 전사자를 추모하도록 하였다(Bodnar, 2001: x). 이러한 갈등은 베트남 내부에서도 볼 수 있다. 베트남 통일 당시 탱크가 돌진했던 상징적인 현장은 호치민 통일궁(그림 3e 참조)이었지만, 실제 탱크는 하노이 군사박물관에 전시함으로써 승리의 역사는 북베트남의 것이라는 의미를 은유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쟁 후 베트남에 잠재적으로 남겨져 있는 승자와 패자에 대한 내적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갈등 이외에도 전쟁 중 벌어진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 베트남과 미국, 그리고 한국은 불편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의 민간단체에서 미라이 평화공원 등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메모리얼을 조성하였으나, 베트남 스스로 메모리얼을 통한 인도주의 관점의 치유와 평화라는 사회적 목적성은 부족하였다.

이와 같이 베트남전쟁 메모리얼에는 민족주의·애국주의·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가 복합적으로 내재되었고, 전통적 문화와 관습적 사고가 지배적으로 적용되었다. 따라서 현대적인 전쟁메모리얼 설계에서 요구되는 희생자 추모, 전쟁에 대한 고민, 갈등 치유와 평화 추구라는 논쟁적 이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메모리얼 조성과정에서 요구되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의견수렴의 과정을 통한 집단적 기억의 생성과 공공의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 미흡하였다.

이러한 기념문화적 특성은 한국에 있는 6·25전쟁 기념공간에서 반공 및 안보정신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대립적이었지만 전통적 공간 양식을 받아들였다(이상석, 2010a: 107)는 점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한국전쟁 및 베트남전쟁 메모리얼을 조성하면서 내부적으로 많은 정치사회적 갈등을 겪었으며, 메모리얼에서 장소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쟁의 기억과 개인·집단·국가적 정체성을 구현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이상석, 2010b: 23), 현대적 메모리얼의 양식을 따랐다는 점에서 베트남이나 한국과 다른 기념문화적 특성을 보여주었다.

##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에 있는 베트남전쟁 메모리얼을 대상으로 메모리얼의 유형적 특성, 설계개념 및 내러티브, 장소 및 공간적 특성, 도입요소의 특성, 조정디테일에 나타난 표현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베트남전쟁 메모리얼에 나타난 기념문화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1. 오랜 전쟁으로 인해 베트남전쟁 메모리얼은 군인묘지, 전적지, 전쟁박물관, 비극적 장소, 평화공원 등 10가지 유형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전통적 양식에 근거한 군인묘지, 장소성을 강조한 전적지와 비극적 장소, 전쟁승리와 잔혹함을 표현한 전쟁박물관, 평화공원이 특징적인 유형으로 나타났다.
2. 메모리얼에 나타난 주요한 설계개념 및 내러티브는 희생자 추모, 국가에 헌신, 전쟁승리와 저항, 장소적 기념성으로 나타났으며, 전쟁메모리얼의 주요한 개념인 화해와 평화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국제적인 민간단체의 협력에 의해 만들어진 미라이 평화공원 및 한·베 평화공원에서 비극적 사건을 극복하고 평화를 도모하는 개념을 적용하였다.
3. 메모리얼은 DMZ 및 전쟁루트였던 호치민 트레일, 그리고 베트남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주요한 도로인 1번 국도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밖에 하노이 및 호치민 등 도시에 전쟁박물관 및 모뉴먼트가 조성되었다. 또한 묘지 및 추모 메모리얼에서는 문과 기념탑(또는 제단)을 연결하는 축을 중심으로 좌우에 묘역이 배치되는 전통적 공간체계를 따랐으며, 뜨엥썬 국립묘지에서는 8개 꽃잎 형태의 지형을 활용하여 불교적 상징을 공간형태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전적지 및 비극적 장소에서는 장소성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설계를 통한 특징적인 공간 형태보다는 상징적 요소를 도입하여 기념성을 구현하였다.
4. 기념조각 및 기념탑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대표적 양식으로 전쟁승리감과 저항정신을 표현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고, 포획한 무기를 전시하고 박물관에 사진 및 모형 등 자료를 전시하여 전쟁의 긴장감과 리얼리티를 보여주고 있으며, 유교 및 불교 등 전통문화에 근거한 상징요소를 도입하여 추모감을 높였다.
5. 기념조각이나 기념벽에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이용한 사실적 표현을 강조하였다. 또한 상징적 문구로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TO-QUOC-GHI-CONG'에서 전사자의 업적과 국가적 관심을 통하여 그들의 승리감을 나타냈으며, 이와 반대로 'Quagmire'는 미군 참전용사들이 베트남에서 겪은 혼란스럽고 어려운 전투 상황과 베트남전쟁에 대한 미국사회의 혼돈을 묘사하는 정치사회적인 메타포로서 사용되었다.
6. 베트남전쟁 메모리얼에는 민족주의, 애국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등 다양한 이데올로기가 복합되어 있고, 유교·불교·도교·음양오행사상 등 전통문화가 잘 나타났다. 한편, 유교적 전통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전쟁에서 영웅적 여성의 모습을 강조하였으며, 일부 메모리얼에서 베트남전쟁에 대한 국내·외적 갈등이 내포되어 있었다.

본 연구는 자료의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군인묘지의 일부분을 대상으로 포함하였으며, 남베트남군의 메모리얼에 대해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메모리얼에 대한 지속적 연구와 향후 미국 및 한국에 있는 베트남전쟁 메모리얼의 설계특성을 연구하여 메모리얼의 특성 및 기념문화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 감사의 글

본 연구를 위하여 베트남 현지조사 및 자문에 도움을 준 김성찬 님과 Phuoc V. Lee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1. 베트남전쟁 메모리얼은 현지에서 베트남어, 영어, 한국어로 혼용 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조경학회 투고논문 작성지침에 따라 한국어로 표기하였고 의미 전달에 필요한 경우 처음 나온 한글명에 영문을 병기하였다. 단, 병기된 영문 중에서 고유명사는 베트남어 발음을 영어로 변환하여 표기하였다.

### 인용문헌

- 이상석(2005) 경관, 조형 & 디자인. 서울: 일조각. pp. 86-87.
- 이상석(2009) USS 애리조나 메모리얼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환경과 조경 (254): 142-151.
- 이상석(2010a) 6·25전쟁 기념공간에 나타난 기념적 표현.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8(2): 98-108.
- 이상석(2010b) 한국전쟁 메모리얼의 설계요소에 나타난 기념성. 한국조경학회지 38(1): 12-24.
- 고경태(2006. 3. 21) 아시아, 그 결정판!. 한겨레 21 제601호.
- Bleakney, Julia(2006) Revisiting Vietnam(Memoirs, Memorials, Museums). New York: Routledge.
- Bodnar, John(2001) Forward. In Tam Ho Tai eds., The Country of Memory. Berkeley · Los Angeles ·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ix-xi.
- Gills, John R.(1994) Commemorations(The Politics of National Identity). Princeton(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orgensen, Karsten(1998) Semiotics in landscape design. Landscape Review 4(1): 39-47.
- Mayo, James M.(1988) War Memorials as Political. Landscape New York: Praeger.
- Nguyen, Ba Dang, Vu Phuong Nguyen, and Hoang Van Ta(2010) Traditional Vietnamese Architecture. Ha Noi: The Gioi Publishers.
- Potteiger, Matthew and Jamie Purinton(1998) Landscape Narratives. New York: John Wiley & Sons.
- Quang Ngai Vestige Sites Management Board(2009) A Look Back Upon Son My. Quy Nhon: Tang Bat Ho TP.
- Tam Ho Tai(2001) Faces of Remembrance and Forgetting. In Tam Ho Tai eds., The Country of Memory. Berkeley · Los Angeles ·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67-195.
- Tam Ho Tai(2001) Introduction: Situating memory. In Tam Ho Tai eds., The Country of Memory. Berkeley · Los Angeles ·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21.
- Yoshimura, Valerie Nao(1997). Ruin & Reunions, Planes & Cranes: National Identity and World War II Memorials in France, Japan, and the United States. Kyoto and Tokyo: The 49th Annual Japan-America Student Conference 1-26.
- Wagner-Pacifici, Rovin and Barry Schwartz(1991) The Vietnam Veteran Memorial: Commemorating a difficult past.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7(2): 376-420.
- Whittick, Arnold(1961) Symbols Signs and their meaning. Massachusetts: Charles T. Branford Company.
- [http://ko.wikipedia.org/wiki/베트남\\_전쟁](http://ko.wikipedia.org/wiki/베트남_전쟁)
- [http://peace.maripo.com/x\\_pacific.htm](http://peace.maripo.com/x_pacific.htm)
- [http://travel.webshots.com/photo/2780540260040368265VHTUVR?old\\_est=true](http://travel.webshots.com/photo/2780540260040368265VHTUVR?old_est=true)
- [http://www.mylaipeacepark.org/peacepark\\_mylai.lasso](http://www.mylaipeacepark.org/peacepark_mylai.lasso)
- <http://zine.media.daum.net/h21/view.html?cateid=3000&newsid=20060321110710965&p=hani21>

원 고 접 수 일: 2011년 3월 3일  
 심사 일: 2011년 4월 18일(1차)  
 2011년 5월 3일(2차)  
 게재 확정 일: 2011년 5월 9일  
 3인익명 심사필